

DB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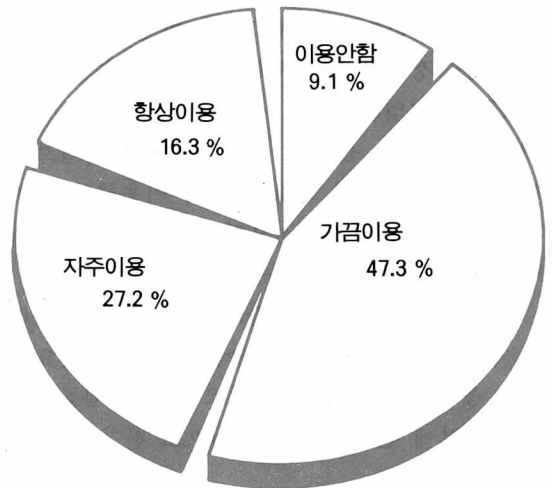
I. DB이용 현황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정보산업관련 산업체(25.6%)와 공공기관(21.7%) 종사자들이 많았고, 학사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96.3%였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87.4%)가 주류를 이루어 국내 DB산업이 현재까지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는 지난달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DB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참석자 954명 가운데 540명을 대상으로 DB산업관련 이용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편집자註



〈그림 1〉

〈그림 1〉과 같이 응답자들은 DB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9.1%인데 반해 가끔씩, 자주 또는 항상 이용한다고 한 경우가 89.9%로 DB이용이 이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세미나에 참석할 만큼 DB에 관심이 높지만 정보가 없거나(26.4%) 소재를

알지 못해(25.7%), 또는 이용불편(16.6%)등으로 56.4%가 DB를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가끔씩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DB이용의 일상화 내지 DB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발굴로 DB내용을 풍부히 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는 물론 검색방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요금이 고가이기 때문에 DB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불과 12.7%로 DB산업 활성화에 요금이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II. 필요로 하는 정보

응답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보를 생활(17.4%), 경제(17.1%), 기술(14.1%), 기업(12.3%), 금융정보(11.5%) 순이라고 한 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술(21.1%), 경제(15.7%), 기업(14.7%), 생활(14.7%), 금융정보(9.3%) 순으로 응답해 생활정보나 경제정보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및 경제정보가 빈약, 내실있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정보나 뉴스정보등에 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응답자가 많지 않아 비교적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DB 이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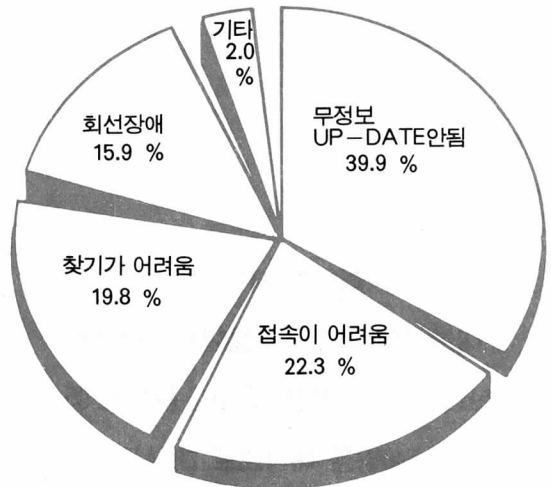
한편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DB서비스망중 전체의 62.2%가 한경 KETEL(38.0%)이나 한국데이터통신의 천리안 II(24.0%)를 이용한다고 답해 국내 DB서비스를 2개의 대형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DB를 이용하는 월 평균횟수는 10회 이하가 62.2%로 아직 이용빈도가 적어 DB에 대한 홍보는 물론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

DB의 활용성을 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1회 접속시 평균 이용시간 역시 10분이하가 55.9%로 가장 많아 정보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IV. DB이용상의 불편한 점



〈그림 2〉

〈그림 2〉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이 DB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가 없거나 UP-DATE가 안돼 있다고 지적한 경우가 39.9%로 가장 많아 DB내용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의 보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접속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도 22.3%나 되어 일정시간대에 DB 이용이 집중되고 있고, DB시스템에서 USER PORT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B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19.8%로 DB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검색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선장애를 지적한 응답자도 15.9%로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회선의 품질개선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V. DB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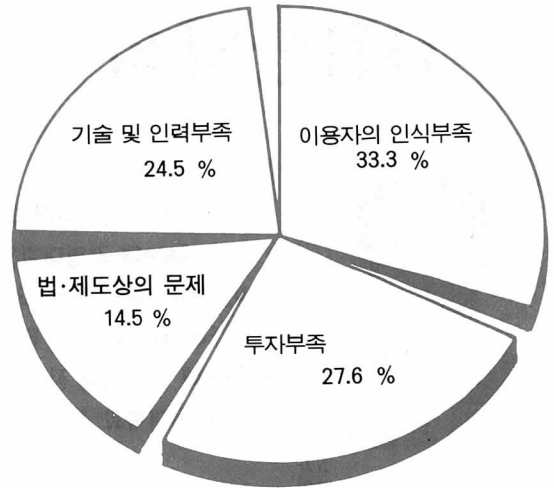
한편 <그림 3>에서 보듯이 DB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전체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39.3%가 이용자의 인식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어 단말기의 보급이나 기술적인 장애요인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7.6%가 투자부족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여타산업과 달리 투자회수 기간이 긴 DB산업에 업체들이 투자를 게을리하기 때문으로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해외 DB 이용 현황

해외 DB는 응답자들 중 불과 9.3%만이 자주 또는 항상 이용한다고 했으며, 기술정보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DB중 필요로하는 정보는 과학·기술(31.8%), 산업·경제(23.5%) 순이었고, 국내에



<그림 3>

서 해외 DB를 사용하는 층은 주로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DB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그림 4>에서 보듯이 소재를 모르거나 정보료와 통신료등 이용료가 고가인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세계시장에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DB검색 전문요원의 양성 및 요금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